

##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 제3회 컴세미나(3rd COME Seminar)

## - 인도네시아를 하나님께로 -

인도네시아목회자 28명, 서만수 선교사 인도하에 27일 입국  
리셉션, 가정 심방 및 구역 예배, 교회학교 참관 등

제3회 충현해외목회  
자교육세미나(COME  
Seminar)의 막이 올랐다.  
지난 9월 27일 오전  
7시 인도네시아목회자  
28명이 인도네시아 주재  
서만수 선교사 인솔하  
에 김포공항에 도착했  
다. 교회에서 준비한 버  
스편으로 호텔회관 숙  
소 등에 여장을 풀고 인  
사와 주의사항을 듣고,  
휴식을 취한 후 교회로  
와서 점심식사 후 홍보  
실에서 개인별 사진촬영  
을 마치는 등 다음날  
부터 실시될 세미나 준  
비에 만전을 기했다.



9월 28일(수) 오전에  
도 교육준비를 하고 오후에는 행사전반  
과 교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전반적으로 교회의 여러 곳을 다니며  
교회에 대한 소개를 받았다. 참석자들을  
모두가 신기하면서도 태도로 즐겁게 교회  
의 여러 곳을 살펴보고 있다. 저녁 7시 수  
요 II부 예배시 제3회 컴세미나 개최예  
배를 드렸다. 참석자는 모두 서만수 선  
교사의 동시통역을 통해 개최예배의 모  
든 순서에 진지하게 참여했다.

9월 29일(목), 본격적인 세미나 일정  
에 돌입했다. 새벽 5시에 교회의 새벽기도  
회에 참석하고 간단한 체조와 개인경

건의 시간을 가지고 아침식사를 한 후  
곧바로 첫번째 강의로 압본기독교대학  
총장의 통역으로 진행된 킨슬러 목사  
의 강의는 80분씩 연이어 두 강좌가 계  
속됐다. 오후에는 총회신학대학원과 순  
교자기념관을 돌아보고 저녁에는 교역  
자와 당회원들이 다 모인 가운데 리셉  
션이 열렸다. 하대선 장로의 사회, 노광  
현 장로의 기도,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설교로 1부 예배를 드렸다. 이 리셉션에  
는 인도네시아 대사관 직원들이 초청되  
어 인도네시아와의 친선의 밤을 방불케  
하는 화기애애하고 인상깊은 리셉션이

되었다.

9월 39일(금)에는  
하루종일 심방과 가정  
방문 등으로 시간을 보  
냈다. 참석자들을 10개  
조로 편성하여 미리 선  
정된 교구의 구역예배  
현장으로 찾아갔다. 교  
회에서는 보다 다양한  
가정심방의 모습을 보  
여주기 위해 심방대상  
자를 경로, 새신자, 위  
로, 환자 등으로 정하고  
여러가지를 경험하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모든  
순서가 끝난 뒤 방문자  
에게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주기도 했다.

저녁에는 금요일집회  
에 참석하여 그동안 보고 느낌점들을  
간증하기도 했다.

10월 1일(토) 오전에는 정삼지 목사  
와 시니어 목사의 강의를 서만수 선교  
사 통역으로 진행했고 오후에는 민숙춘  
과 아남전자를 방문 견학했다.

10월 2일(주일), 오늘은 오전, 오후  
각부 교회학교를 탐방한다. 초등3·4·  
5·6부와 고등부, 장년1부, 대학부에서  
간증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매일 오전 5시부터 시작하여 저녁 9  
시까지 계속되는 힘든 일정속에서도 참  
석자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새로운 세

## 예·수·사·랑·칼·럼

## 하물며.....

저절로 돌아나 요나에게 기쁨을 주던 박  
념물이 벌레에 씹히고 동풍에 말려 날아  
가 버리자 요나는 분해하여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나님께 항변하였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  
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낳다가  
하룻밤에 망한 박념물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을 너는 왜 배양을 분  
변치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  
치 아니하냐"(은 4:10,11)라고 질문하셨다.  
이 하나님의 질문은 한마디로 영혼보다  
박념물을 더 중시하는 우리들에 대한 책  
망이시다. 과연 당신은 무엇을 더 소중하  
게 여기는가? 일시에 말라버릴 박념물인  
가, 죽어가고 있는 무수한 영혼인가?

계를 경험하는 기쁨과 감격 새로운 결  
단 등으로 피곤한 줄도 모르고 열심으  
로 세미나의 일정에 따랐다.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진행, 알찬 내  
용이 하나하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10월 6일(목)까지 진행될 세  
미나는 내일 오전 중에는 강의가 있고  
오후에는 분임토의, 판문점 방문, 충현기  
도원에서의 산상기도회 등의 순서가 이  
어질 것이다.

우리 모두는 따뜻한 마음으로 방문  
자들을 환영하여 주 안에서 좋은 열매  
가 맺히기를 기도하며 이들을 맞아야  
할 것이다.

## 교구 양육위원 실무교육

오늘, 오후 3시 30분 갈릴리홀에서

새가족위원회는 오늘 각 교구 양육위원  
들을 위한 실무교육을 오늘 오후 3시 30  
분에 갈릴리홀에서 실시하게 된다.

전 교구가 예수사랑큰잔치를 앞두고  
마지막 마무리에 열심하고 있고 이에  
따른 새신자의 급증을 예상하며 각 교  
구양육위원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중  
점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남는 혈액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 10월 9일, 헌혈합니다

10월 9일, 오전 8시 부터 오후 3시까지, 본당 앞에서

교회는 오는 10월 9일(주일) 헌혈  
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회는 매년 봄과 가을에 1년에  
두 차례씩 헌혈을 해오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 전하는데 앞장 서 오  
고 있다.

이번에도 다음 주일 오전 8시 부  
터 오후 3시까지 교회 본당앞 광장에  
서 헌혈을 한다.

인체는 10% 가량의 잉여혈액

이 늘 유지되고 있다. 헌혈도 이 10%  
안에서 하게 된다. 이 만큼은 우리가  
이웃을 위해 언제나 나눌 수 있는 여  
분의 혈액이다 (1회 헌혈량  
320~440cc).

또한 인체에서는 매일 50cc 정도  
의 혈액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어서  
헌혈한 사람이 헌혈대를 떠나기도 전  
에 새로운 피가 만들어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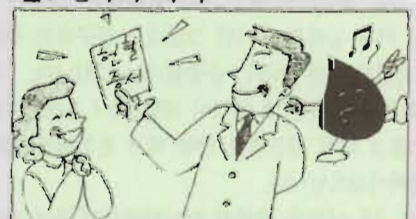
· 헌혈을 하면 다음과 같은 유익이 있습니다.

## 1. 사랑의 실천



당신의 헌혈로 생명을 구합니다.  
Give Blood... Save Life...

## 2. 혈액의 예치



헌혈 증서는 영구적으로 유효하여 본인뿐 아니라  
어웃에게도 똑같은 혜택이 돌아옵니다.

## 3. 건강진단의 기회



체중, 혈압, 혈액형,  
혈액 비중 검사



Rh 음성혈액형, B형간염항원,  
C형 간염항체검사



간기능검사(S-GPT),  
매독 항체검사



B형, C형 간염항체가 양성이면  
간기능검사가 기본으로 실시되며  
S-GOT, 총단백, 알부민, 콜레  
스테롤, 요소질소, A/G비 검사

개인으로  
통보

**빌라델비아교회**는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 가운데 가장 역사가 짧은 교회였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보면 별 볼일 없는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교회는 이름 그대로(필라델피아 = 필리아 + 아델포스 즉 사랑 + 형제) 형제의 사랑이 아주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있던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지진의 위협을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또 이 지역은 포도가 많이 났기 때문에 포도주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람들은 디오니소스(박쿠스)라는 술을 맡아 주관하는 주신(酒神)을 섬기고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러한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교회는 믿음의 보루, 기독교의 보루라고 할 만큼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특별히 14세기에 십자군이 일어나서 터키를 중심으로 형성된 회교권하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때에도 이 교회 교인들은 움직이지를 앉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20세기 후반인 지금도 빌라델비아교회가 있었던 지역에는 천여명의 신자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빌라델비아 지역은 조그마한 지역이지만 빌라델비아교회는 서마나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은, 아주 믿음을 잘 지킨 정말 흠모할 만한 교회였습니다.

### 1. 빌라델비아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 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7절) 빌라델비아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첫째로 거룩하시고 둘째로 진실 하시고 셋째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열쇠란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그 당시 청지기인 엘리야김에게 주었던 열쇠입니다. 이 열쇠는 집과 성전과 창고를 맡아서 주관하는 열쇠입니다. 따라서 열쇠를 주었다는 말은 이런 것들을 주관할 수 있는 권위를 주었다는 뜻입니다. 요즘도 보면 교회가 봉헌예배를 드릴 때에는 대개 당회나 제직회에서 금으로 열쇠를 만들어서 당회장 목사님께 드리는 관례가 있는데 이것은 '이 교회에 말씀과 치리를 할 수 있는 권위를 드립니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기를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왕적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마 28:18). 예수님은 삶과 죽음의 모든 것을 좌우하시는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바로 빌라델비아교회를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 2. 빌라델비아교회에 하신 칭찬

첫째로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는 능력이 많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재력, 학력, 권력 등 능력을 많이 갖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칭찬받지 못합니다. 빌라델비아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 비록 능력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고후 12:9)고 하신 말씀대로 약한 데서 온전해진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교회입니다.

둘째로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입술로, 그리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반하지 않을 때 칭찬을 받습니다. 특히 빌라델비아교회는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도다"라는 말씀대로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린 문은 비단 이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개개인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마다, 교회마다 형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문,

선교의 문, 봉사할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이 문이 열렸을 때에 이 문을 우리가 닫아서는 안됩니다. 이 문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교회는 이런 기회를 잘 선용한 교회입니다.

### 3. 빌라델비아교회에 대한 권면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충현강단



## 빌라델비아교회에 보내는 편지

(계 3:7-13)



신 성 중

<목사·당회장>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11절) 이 교회에 주시는 가장 중요한 권면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굳게 잡지 않음으로 빼앗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서가 그랬고(창 25:34, 27:36),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그랬고(창 49:4, 8),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삼상 16:1, 3). 또한 국고를 맡은 궁내대신 쉔나가 그랬고(사 22:15-25), 총사령관인 요압, 제사장인 아비아달은 불충성하다가 그 직분을 부나야와 사독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왕상 2:25-35). 우리가 잘 아는 가롯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손에 없는 것을 잡으려고 돌아다니다가 자기 손에 있는 것까지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귀한 줄 알고 굳게 잡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너무나 귀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물론 건강도 주셨고, 생명도 주셨고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만 가장 귀중한 것은 보수적인 신앙, 순수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굳게 안잡으면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깁니다. 면류관은 승리자만이 가지는 것입니다.

### 4. 승리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첫째로 10절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시험의 때를 내가 면하게 하겠다는 말씀은 시험이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사람치고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고전 10:13)는 말씀과 마찬가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분량의 시험만 주십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연단을 받고, 점점 순수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의 때는 면케해 주시고 또 어려운 시험이 오면 피할 길도 주십니다.

둘째는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

둥이 되게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면 야긴과 보아스라는 큰 기둥 두 개가 양쪽으로 서 있습니다. '야긴'이라는 말은 '저가 세우리라' 즉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말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즉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있듯이 우리를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지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무리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또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기둥, 교회의 기둥, 사회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12절 하반절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쓰는 이유는 주인이 누구인가를 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이마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른손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름이 바뀐 사람이 참 많습니다. 사기꾼,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아돔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뜻의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셨습니다.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그의 아내 사래는 사라로, 또 회망이라는 뜻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이름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름은 우리의 인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또 본문에 보니까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를 나누어 가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델비아교회에 주신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3절은 다른 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빌라델비아교회에 주시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 바라기는 충현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만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귀중한 줄 알고 굳게 잡아서 우리의 면류관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 ① 예수사랑큰잔치를 앞두고 ①

## 바벨탑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

임 성 환

(목사, 전도위원회·사랑부·23교구 지도)

북한에 거대한 단군전이 건립되고 몇몇 인사가 초청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마다 다른 곳에 믿음을 걸어보는 것이다. 약 4500년 전, 세상을 향한 홍수심판은 너무나 무서웠다. 오직 노아와 그의 세 아들과 자부 여덟 식구만이 구원받았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다시 축복과 번성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인구가 늘어나서 양식이 필요함에 따라 시날평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웬지 모르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서로 의지하고 함께 살기를 원했다. 결코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

홍수심판 이후 하나님은 계속적인 은혜의 징표로 무지개 언약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쉽게 믿을 수 없었다. 사람이 두려웠고, 자연이, 짐승이,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웠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불신앙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잊어버렸다. 이제 뭔가 인간의 힘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쫓기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평화로운 출발을 하여 저들의 경계를 확장해 나가는 대신에, 오히려 그것을 요새화하려

고 궁리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들은 시날평지에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다.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하여 우리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11:4)고 하였다.

그들이 바벨탑을 건축한 목적은 또 다른 홍수에 대비하는 자기 위로의 수단이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보다는 자기들이 세운 탑을 믿으려 했다. 그들은 서로 열을 내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대답해졌다. 서로 선한 일을 하며 사랑하고 자극하는데 열을 올려야 한다. 그런데 그들은 악을 조장하는데 열을 올렸다. 하나님은 흠어지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9:1). 그러므로 바벨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보다 인간의 연합된 힘을 의지했다. 하나님없이 연합한 힘, 이것은 거대한 불신앙이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대고” 이름을 남기려는 공명주의는 신앙인의 태도와는 위배된다. 무엇을 하

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다. 타락한 후 인간은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 채려는 인간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인간의 부패는 정말 심각하다. 인간의 약한 마음 속에는 도무지 하나님의 존재를 끌어내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반항심이 들어 있는 것 같다.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을 그냥 버려 둘 것인가?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파멸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은혜로운 간섭을 하였다. “우리가 내려 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창 11:7).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어신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창 11:8)

바벨탑의 결과는 무엇이었나?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이루어진 명성을 흠속에 파묻어 버렸다. 흠어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은혜로운 처사이다. 하나님은 흠어지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9:1). 그런데 인간은 흠어지기를 싫어한다. 이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책임을 회피하는 불신앙이다.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다. 그런데 그들은 “아니오,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죽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예수사랑 큰잔치를 대하는 태도들도 다양하다. 우리끼리만 해도 이렇게 불편한데, 또 다른 자들을 초청한단 말인가.

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자들이다. 바벨탑은 무너진 것이 은혜이다. 만일 바벨탑이 온전하여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면 그것이 저주이다. 때로 우리의 역사의 걸음을 중단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인간의 계획과 뜻이 허사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뜻이 성취되는 것이 성공이고 아름다움이다. 이때 우리의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깨어질 수도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도와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인간을 사랑하셨다. 언어를 혼잡케 하심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초청이다. 이것은 저주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다. 인간은 어떤 외적인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정한 연합을 이루며 힘있게 살아야 한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이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도 오직 한분이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어느 개인에게 구원받을 만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단에게 구원받을 만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다. 바벨탑이나 홍수심판은 그것을 입증한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그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다. 세속적이고 혼합적인 삶을 떠나 믿음으로 살아가자. 우리는 죽기까지 믿음으로 사는 연습을 해야 한다. 바울의 믿음의 경주를 다했다는 고백을 생각해 보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 다함께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자리까지. 저 천국까지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다해보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경주를 책임져주실 것이다.

## 94 예수사랑큰잔치

## 방문, 전도에 힘써야 할 때

10월 11~15일 초청전도집회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메시지 실린 전도지

10월 7일 금요일집회는 전 교구식구 총동원하여 서로 협력과 마음을 모으는 기쁨을 살아

94 예수사랑 큰잔치가 2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보내온 그리스도의 편지도 12신이 끝나고 13, 14신의 초청내용이 들어있는 편지를 보낼 때이다.

매주 교구일꾼훈련도 하고 구역장 훈련도하며 준비해오고 있다.

이제 남은 일은 그들을 만나서 전도하여 교회로 데려오는 일들이다.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은 집중적으로 그동안 편지를 보냈던 사람들을 방문하고 전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방문시 필요한 위생팩도 지급됐고 각 교구나 개인 별로 별도의 선물을 마련하기도 한다.

또한 교회에서는 태신자에게 전도

할 때 사용할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전도용 메시지를 실은 전도지를 준비했다. 이러한 모든 도구들을 활용하여 태신자들에게 접근하여 전도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한편 교회는 지난 9월 30일과 10월 7일 금요일은 예수사랑큰잔치를 앞두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두고 협력하는 의미로 교구의 모든 식구가 동원되는 총동원하는 날로 정했다.

지난주(9월 25일)까지 우리는 그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가족을 영접하자

## 그리스도의 편지 13, 14신(초청편지)

## 태신자들에게 계속해서 발송해야

스도의 편지 12신을 초청대상자인 태신자들에게 모두 발송했다. 따라서 이번 주부터는 그리스도의 편지 13, 14신에 해당되는 초청편지를 발송하게 된다. 혹시 중간에 편지를 발송하여 아직 12신을 다 보내지 못한 태신자들에게도 금주간(10월 2일)에는 13신(초청 1신)을, 다음주(10월 9일 주간)에는 14신(초청편지 1신)을 보내야 한다.

이 초청편지는 정중하고 따뜻하게 초청하는 내용이 실려있어 지금까지 편지를 받은 사람들라면 좋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지난주부터 보내기 시작한 초청장도 13, 14신을 보낼때 함께 보내야 한다.



**예수사랑큰잔치초청집회**  
10월 11일(월) : 오후 7~9시  
10월 12일(수) : 오전 10시30분~12시30분, 오후 7~9시  
10월 13일(목) : 오후 7~9시  
10월 14일(금) : 오후 7~9시  
10월 15일(토) : 오전 10시30분~12시30분

**예수사랑큰잔치 (10월 16일 주일)**  
· 주일예배  
10월 7:00 | 9:00 | 11:00 | 1:00 | 3:00  
· 초청잔치 10월 14일 3:00 ~ 5:00



여기,  
영원한 사랑과 행복의 올망으로  
사랑하는 \_\_\_\_\_님을 초대합니다.

## 토막소식

◆ 영아부는 10월 9일 새친구 초청잔치를 개최한다.

◆ 탁아부는 옷을 버린 아기들○네게 같이입힐 아동복(현옷)을 필요로하여 모으고 있다. 또한 10월 6일(목) 야외친교회를 숙리산에서 갖는다.

◆ 초등1부는 오늘 제3회 학습평가를 실시한다. 7월부터 9월까지 공부한 공과공부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 초등4부는 10월 9일 주일예배시 반별 찬송가경연대회를 갖는다. 또한 100% 출석한 반부터 반별졸업사진을 찍고 있다.

◆ 청년2부는 10월 9일 총동원 전도잔치를 계획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

◆ 장년2부는 오늘 김정우 교수(총신대 구약교수)를 모시고 시편강해 특강시간을 갖는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

여를 바라고 있다.

◆ 새가정부는 10월 9일 예수사랑 큰잔치를 계획, 준비에 한창이다. 신혼가정, 잃은 가정(6주 이상 결석가정), 3년 미만 결혼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오늘 반별성경퀴즈대회를 갖는다.

◆ 중등2부는 지난 9월 25일 봉사관 지하 2층 마르다홀에서 새로운 많은 친구들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수사랑 큰잔치의 일환으로 작은음악회로 모였다.



## 다함께 기도합시다

##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주시옵소서.  
· 김창인 목사님 : 3일(월) 제11차 전국교역자 사모 초청 영적갱신기도 성회 설교(구로 중앙 수련회),  
5일(수) 충현해외목회자교육세미나 강의,  
6일(목) 김포 광일교회 부흥회 인도  
· 신성종 목사님 : 3일(월) 동도교회 창립41주년 기념 및 은퇴 예배 치사,  
4일(화) 충현해외목회자교육세미나 강의,  
6일(목) 월간목회 선교 논문 발표회 사회
2. 충현해외목회자교육세미나에 참석한 인도네시아 교역자들에게 능력과 건강을 주사 이번 교육훈련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주시사 이들을 통해서 인도네시아를 그리스도교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3.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있을 초청전도집회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는 모든 분들과 이웃의 믿지 않는 자들을 인도하여 많은 심령들이 결신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4. 충현의 성도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환난과 질병에서 죄악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5. 해외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을 지켜 주시며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 만방에 증거되게 하시고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의 설립과 제2교육관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어 초청느 주일 낮 12시경에 교회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여느 때와 같이 II부 예배가 막 끝나, 지하 주차장에 주차했던 차들이 나가느라 통로를 꽉 메워진 가운데 차량 안내원들이 총동원 돼 질서를 잡고 있을 때였다. 찬양연습시간에 가까스로 맞춰 달려온 초집사는 때마침 차 서너대가 들어갈만한 빈 공간을 발견하고 거기에 주차하려고 진입하다가 주차장 입구가 막힌 것을 알았다. 이에 연습시간에 쫓긴 초집사는 이를 무시하고 막은 입구를 열고 들어오던 참에, 이를 보고 있던 ○집사가 한마디 하였다. “그렇게 다짜고짜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차량부의 안내에 따르십시오”

이에 차량부의 안내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초집사는 “왜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 못들어오게 하느냐!”며 언성을 높이면서 언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차량부 사무실에 불이 있어 오는 길이었던 ○집사는 막 밀고 들어오는 차량에 주의를 주기 위함이었는데 이에 초집사가 발끈한 것이었다. 몇마디의 거친 말이 오간 후 정리되었는지 ○집사가 사무실에 들어와 앉아 있는데 아직 화가 덜 풀린 초집사, 불쑥 사무실에 들어와 다짜고짜 ○집사를 보고 “밖으로 나와!”라고 격양된 목소리로 소리치자 이에 ○집사 질세라, “내가 왜 나가! 할말을 했을 뿐인데”라고 응수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나로서는 점점 사태가 심각해지자 싸움을 말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겨우 서로의 입장을 조정해 화해를 시키고 돌려보낸 후 이제 됐나 싶었는데 한참 후에 시비를 가리자며 들어 차량부에 다시 왔다.

분이 덜 풀린 초집사가 III부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집사가 봉사하는 곳으로 가서 다시 시비가 벌어져 결국 문제가 발생한 이곳으로 온 것이다. 참 입장이 곤란했다. 누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었다.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주차장 입구를 막아놓는 것은 예배가 끝나 주차했던 많은 차량들이 원활히 빠져나가기 위한 것인데 이를 모르거나 혹은 알고도 바빠서 빨리 입구를 열라고 고함치는 분들과 싸우는 일에 차량부 사람들은 익숙해져 있다. 만약 빠져나가는 차량이 많은 시간에 입구를 열게 되면 나가는 차와 들어오는 차들이 엉켜 원활한 소통에 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입구를 잠시나마 막아놓는 것이자 다른 뜻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아는 ○집사가 막 밀고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 한 마디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차량관리부원도 아닌 사람이 주차제지를 하는 것에 기분이 나빠진 초집사의 입장에 이해가 가는 일이었다. 그래서 둘은 조금도 양보하려고 하지를 않고 서로 버티고 있었던 것이었다.

드디어 중재에 나서기로 결심을 하고 먼저 초집사에게 제3자의 입장에서 설명하였다.

“처음 차량관리부 사무실 창을 밖에서 확 열고 ○집사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친 사람은 누구지요?” 초집사가 겸연쩍은 표정을 지었다. 계속 말을 이었다.

“어떠한 문제 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가기 전에 입구를 열면 차들이 엉킬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주차공간이 있는데도 입구를 열지 않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 저희도 생각합니다.” 초집사, ○집사 표정을 살펴보니 이해하는 듯이 보여 계속 말을 이었다.

“여기에 있으면 하루에도 여러번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로에 주차한 분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고 내리는 바람에 차를 못빼 차주인을 기다리는 분들로 말입니다. 대개 이러한 분들은 차주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저희 차량부에 찾아오면 특별한 경우 문을 열고 그 차를 밀어 길을 열어주기도 하는데 이 또한 말썽이 되곤 합니다. 왜 남의 차를 함부로 여느냐?, 그 바람에 차 안에 귀중한 무엇이 없어졌다는 등 말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본당 뒤 주차장이 꽉 들어차면 정문쪽 안내원은 지하주차장으로 가라고 합니다. 해서 여기에 와 보면 입구를 막아놓고 못들어가게 합니다. 그래 자리가 비겠거니 하며 한바퀴 더 돌고와도 여전히 막혀있는 것을 보고 저희한테 막 신경질을 부리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의 일은 모두가 봉사의 일이지기에 무슨 일이란 누구나가 다 똑

같은 입장입니다. 더불어 저희 고충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로가 조금만 양보하면 원활하게 차들이 왕래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참아서 교회 안에서 큰 소리가 오가는 모습은 그리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서로 조금씩만 이해해 주십시오”

어느덧 초집사의 표정이 누그러져 있었고 미안한 개색을 감출 수가 없는 것 같았다. ○집사에게 악수를 건내면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제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 이 말을 들은 ○집사가 반색을 하며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한 건데요. 그리고 차량부원도 아닌 제가 주저넌게 말한 것 같아 죄송하네요” 이렇게 서로가 화해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특히 초집사는 지켜보고 있던 우리에게 자신이 도울 일이 없으면 언제든지 도와주겠다며 웃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그 자리를 떠났고 우리는 북받치고도 신경이 쓰이는 일 가운데서도 이런 호 뜻한 일이 있기에 차량봉사를 계속하는지도 모른다.

## ○ 살며 생각하며 ○

## 주차장에서 생긴 일

김 규 중

(집사, 차량관리부)



너무한 것이 아닌가요?”

“... ..”

“그런데 왜 막아놓은 입구를 열고 들어왔습니까?”

이 질문을 받고 그때까지 묵묵히 있던 초집사가 말문을 열었다.

“찬양대 시간에 맞춰 열심히 왔는데 보니 주차장 입구를 막아놓아 시간에 못가 하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큰 맘먹고 찬양대 빠지지 않고 제시간 맞춰 오려고 했지요 그런데 주차장이 많이 비어있는데도 입구는 막혀있고 더구나 아무도 안내하는 사람이 없어 부아가 나서 열고 들어오는데 차량관리부원도 아닌 사람이 들어오지 말라는 투로 얘기해서 화가 났던 것입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 이해할 만한 사정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입구를 막아놓은 이유를 찬찬히 설명했다. “그때가 바로 II부 예배가 막 끝나, 나가는 차량을 원활히 내보내기 위해 모두 출구쪽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구 쪽에 사람이 없었던 것이고 더욱이 우리로서는 주차공간이 몇자리 빈다고 해서 입구를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차들에 어느 정도 빠져나